

미중관계: 갑자기 불어온 훈풍?

17일 하와이에서 미중 양국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외신에서 보도
양국의 이해관계: 중국은 홍콩/대만 지정학 리스크 완화, 미국은 지지율 제고
현상황 타개를 위한 단기 노력, 미중관계 개선 전환점으로 작용할 가능성 낮아

미중관계: 갑자기 불어온 훈풍?

미중 관계에 갑자기 때아닌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홍콩 매체인 사우스차이나모닝 포스트(SCMP)에 따르면 17일(수)에 미중 양국이 하와이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미국측 대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고, 중국측 대표는 양제츠 외교담당 중앙정치국 위원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정기 기자회견에서 현재 미국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으며 진전이 있으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미중 양국의 미세한 태도 변화이다. 중국은 6월 14일 인민일보 일간지에 이례적으로 미중 관계에 관한 훈훈한 기고문이 실렸다. 내용은 일부의 미국 정치가들이 미중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지만 양국 국민의 양호한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동안 미국과의 정치, 종교 압박에서 국가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는 과거 입장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미국도 비슷하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가 15일 자국 기업이 중국의 대표 통신 장비업체인 화웨이와 5G 네트워크 국제 표준 구축과 관련해서 협력할 수 있게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차세대 네트워크 국제 표준을 논의 및 설정 과정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 우세하지만 그동안 안보 문제로 화웨이와의 거래를 금지했던 것에서 완화 모드로 변한 것은 분명하다.

[그림 1] 6월 14일 인민일보 기고문: '미중 양국 국민의 우호 관계를 파괴할 수 없다'



최설화

emily.cui@truefriend.com

주: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20-06/14/nw.D110000renmrb.20200614_2-07.htm
자료: 인민일보,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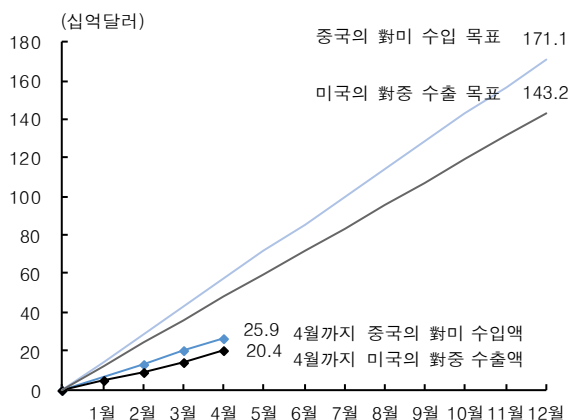
이번 회담은 현상황 돌파를 위한 양국 정부의 단기 노력

미중 고위급 회담은 현상황
돌파를 위한 단기 노력일 것

외신에서 보도한 대로 이번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코로나19 이후 미중 양국 고위급 인사 간의 첫 대면 협상이 될 것이다.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코로나19로 경기가 부진한 환경에서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 모두 현재 처한 경제, 정치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를 원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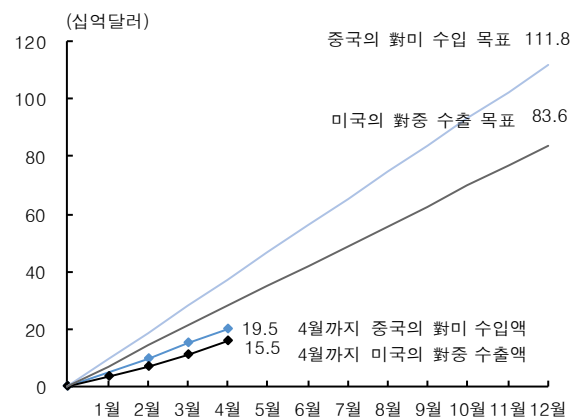
중국은 홍콩 국보법 시행을 앞두고 이번 미국과의 만남을 통해 홍콩, 대만과 연관된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중국으로 하여금 앞으로 더욱 많은 농산품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둔화를 일부 만회하려고 할 것이다. 실제 작년 12월에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했지만 올해 1~4월까지의 이행율을 보면 전체 품목으로 합의액의 14%에 불과했고, 특히 에너지의 이행율은 2.8%에 불과했다. 바이든의 지지율이 훨씬 높아진 상황에서 트럼프에게는 중국의 합의안 이행이 절실할 수 있다.

[그림 2] 미중 1단계 합의안 이행 진도: 전체 품목은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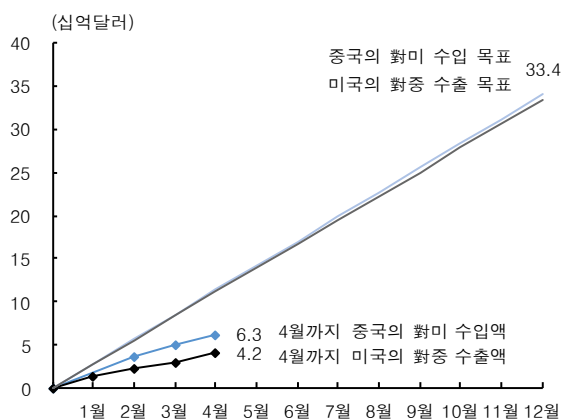
자료: 중국 통계국, 미국 통계국, 한국투자증권

[그림 3] 미중 1단계 합의안 이행 진도: 공산품은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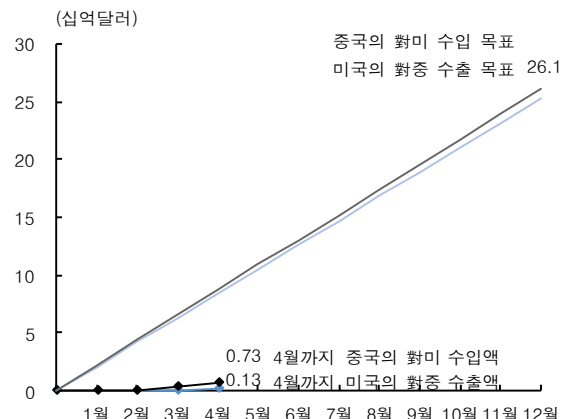
자료: 중국 통계국, 미국 통계국, 한국투자증권

[그림 4] 미중 1단계 합의안 이행 진도: 농산품은 12.5%



자료: 중국 통계국, 미국 통계국, 한국투자증권

[그림 5] 미중 1단계 합의안 이행 진도: 에너지는 2.8%



자료: 중국 통계국, 미국 통계국, 한국투자증권

이번 회담이 미중관계
전환점으로 작용할 가능성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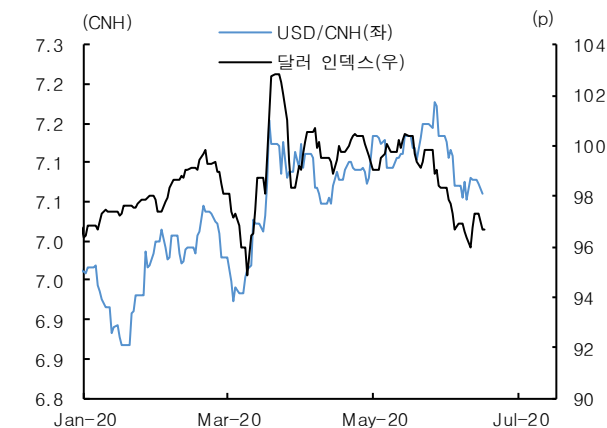
단 미중관계 전환점으로 작용할 가능성 낮아, 내수주로 대응

상기 원인으로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악화되었던 미중 양국 관계는 최근 다시 미세한 완화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지며 금융시장에 긍정적이다. 미국 정부의 화웨이 거래 규제 완화 소식에 16일 중국 본토시장에서 오랜만에 5G 관련주들이 급등했고, 역외위안화(CNH) 환율도 장중 7.06위안/달러 수준까지 절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양호한 관계의 지속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제츠 외교담당 특사와 폼페이오 모두 미중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고, 폼페이오 24시간만 하와이에 머물 것이라고 보도되어 실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의 친중적인 행보가 반중(反中) 감정이 높은 미국에서 꼭 대선에 유리하다는 보장도 없다. 필자는 이번 회담을 중장기 미중 패권전쟁 과정에서 단기 개선 흐름이며, 향후 전환점으로 작용되기 위해서는 추후 양국 정상 결단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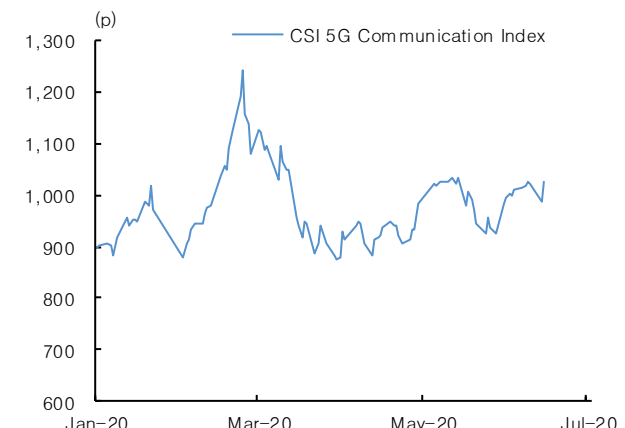
따라서 비록 미중간의 훈풍이 불어오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중국 본토시장에서 3분기는 수요가 가장 확실한 내수 업종으로 대응하고 기술주는 3분기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을 유지 및 권고한다.

[그림 6] 역외위안화(CNH) 환율: 7.06위안/달러까지 절상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7] 6월 16일 중국 5G 테마지수 3.6% 상승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